

## 정보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시대 위한 준비

손 완 수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사업단장 상무

국내 EDI 현황은 90년 초부터 시작된 무역자동화, 통관자동화가 97년에 성공리에 완성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발주 관련 EDI 도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효율화 촉진법(FASA)에 의한 조달 EDI의 의무시행이 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토 밖에서는 한국의 미 8군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은 네트워크 즉,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지구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라운드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하였으며 UN의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40개국 경제무역 장관회의에서의 “본 선언” 핀란드에서의 OECD 전자상거래 관련회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장관회의를 통한 구체적 실천방안 및 관련 표준들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에 이어 '98년에도 조달 EDI의 보급, 국방조달 EDI 구현, 의료 EDI의 확산, 종합물류자동화시스템 및 기업의 수발주 EDI가 본격화될 것이며 CALS 관련하여서는 Electropia의 가전 4개사 간의 협업, 건설 CALS의 시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의 역할 및 지방확대 등 21세기 광속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착실한 준비기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일렉트로피아는 업체간 표준부품을 개발, 조

달하고 공동 전자쇼핑 플라자를 개설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정보체제 마련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의 국제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업체간 연합 컨소시엄으로서 Electropia의 성공은 타 산업분야에 적용을 위한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EC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핵심요소 기술개발, 법 제도 등의 보완과 암호 및 보안기술, 물류체계, 지불 및 결제 수단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인터넷라운드에의 효과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CALS/EC 도입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CALS/EC 개념에 입각한 정보기술을 근간으로 한 기업 혁신을 꾀하여야만 한다.

CALS/EC 도입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만이 국제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우리 기업이 살 길이며 CALS/EC의 구현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EDI의 도입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이 각각 2005년 2006년을 목표로 단계별 인프라 구축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인 가상기업을 실현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끝으로 '98년도는 EDI/EC/CALS 관련 정보기술의 도입 및 구현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과 정보통신 발전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IMF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